

목차

김만덕을 기리다 - 만덕제	5
(김만덕기념관 김세영 학예사)	
논개를 기리다 - 의암별제	17
(경상국립대 양지선 학술연구교수)	
신사임당을 기리다 - 신사임당 추모제	37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류연교 회장)	
임윤지당을 기리다 - 임윤지당 일 선양 한다레	53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지회 이동희 회장)	
홍도를 기리다 - 동도 명기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	61
(홍도 최계옥 기념사업회 김호상 회장)	



김만덕을 기리다 - 만덕제
(김만덕기념관 김세영 학예사)



제 주의 의 인 김 만 덕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김만덕기념관 김세영 학예사

01 김만덕의 삶



차비대령 행수내의녀

김 만 덕
(1739~1812)

01 김만덕의 삶



1739년(영조 15) 제주성내, 김응열의 2남 1녀 중 둘째로 탄생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퇴기의 수양딸이 되어 기녀가 됨

00

목차

01 김만덕의 삶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03 만덕제의 미래

01 김만덕의 삶



기녀에서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하고
건입포에서 객주를 운영, 거상이 됨

01 김만덕의 삶



출륙금지령을 뚫고 정조 알현, 금강산 유람
1812년(순조 12) 별세
추사 김정희, 후손에게 "은광연세" 글씨

01 김만덕의 삶



1792년(정조 16)부터 4년간 흉년 "갑인흉년"
전 재산을 내놓아 제주 백성을 살리다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1980.10.28
한라문화제 전야제로 시작
여성 대표, 여고생 등으로 제관 구성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김만덕상

'만덕봉사상' 명칭으로 시작
1회 수상자 고수선(1898-1989)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 2006년 조례 개정, 후보자 추천 전국 확대, 봉사·경제인 2개 부문 시상
- 2024년 조례 재개정 및 김만덕국제상 제정,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현재까지 봉사 45명, 경제인 14명 총 59명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만덕제의 제관

삼헌관을 비롯한 12인의 제관들이 봉행하고 있으며
매년 덕망있는 여성들로 선정한다.

제관명	역할
삼헌관	신위 앞에 술을 올리는 사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3인으로 구성.
대축	축문을 읽는 제관
분향	분향할 때 향합을 받드는 제관
봉로	분향할 때 화로를 담당하는 제관
봉작	술잔을 받드는 제관
헌작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리는 제관
사존	제주(祭酒) 담당자로 술을 잔에 따르는 제관
집례	통가를 부르며 예행 집행하는 제관
찬자	집례가 읽는 통가(통가)를 청(淸)하는 제관
찬인	헌관을 모시고 안내하는 제관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만덕제의 제례 순서



점시례

초헌관은 차례놓은 제물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부족한 점이 없나 살피고 바로 잡는다.



관세례

헌관과 제관들은 손을 씻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만덕제의 제례 순서



참신례

모든 재관이 영령 앞에 두 번 절하는 예식.



분향례

하늘로부터 혼을 부르기 위해 불을 붙여 향을 창로에
넣고 연기를 피우고 두 번 절하는 예식.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만덕제의 제례 순서



참신례

모든 재관이 영령 앞에 두 번 절하는 예식.



분향례

하늘로부터 혼을 부르기 위해 불을 붙여 향을 창로에
넣고 연기를 피우고 두 번 절하는 예식.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만덕제의 제례 순서



초헌례

첫 번째로 신위에 술을 올리는 예식.
초헌관이 술잔을 받아 올린다.
대축이 축문을 낭독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끝난다.



아헌례

두 번째로 신위에 술을 올리는 예식.
아헌관이 진행한다.



종헌례

세 번째로 신위에 술을 올리는 예식.
종헌관이 진행한다.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만덕제의 제례 순서



진다례

송동을 올리는 예식.
사준이 송동과 국을 바꾸어 올린다



음복례

술과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식.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만덕제의 제례 순서



진다례
송병을 올리는 예식.
사준이 송병과 국을 바꾸어 올린다



음복례
술과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식.

02
김만덕상과
만덕제

만덕제의 제례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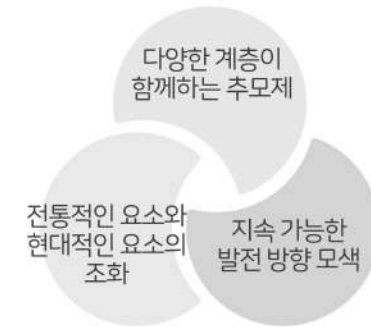


사신례
제사를 지낸 뒤 영령과 작별하는 예식.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위 앞에 절한다.



분축례
제례 때 사용한 축문을 불에 태우는 예식.

03 만덕제의 미래



감사합니다.



논개를 기리다 - 의암별제
(경상국립대 양지선 학술연구교수)



진주 의암별제

경상국립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양 지 선

한국인에게 논개의 의미?

- 논개는 애국, 의로움과 희생정신의 상징
-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투신한 여성은 논개가 유일
- 진주? 논개



목차

- I. 논개의 존재
- II. 논개의 죽음과 진주인
- III. 1868년 의암별제 창설
- IV. 의암별제의 변천
- V. 의암별제가무의 무형유산 가치

I. 논개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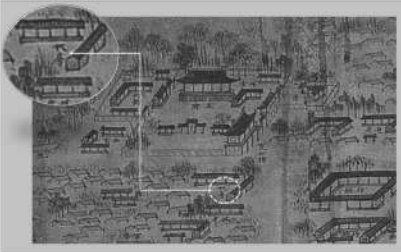
논개는 진주 관기(官妓)였다. “論介者 晉州官妓也”

만력 계사년을 만나 김천일이 거느린 의병이 진주성에 들어가 왜적에 맞서 싸웠다. 성이 함락되자 군사는 흩어지고 백성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몸단장을 곱게 하고 정갈한 옷차림을 한 후, 측석루 아래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다. 바위 아래는 강물의 한가운데였다. 여러 왜(倭)가 이를 보고 좋아하며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오직 한 왜(倭)가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그를 꺾어 내며 웃으며 맞이하였다. 논개는 드디어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 유몽인 (1559-1623), <어우야담> - 논개 사후 20~30년

유몽인柳夢寅(1559-1623), <어우야담>

1. 진주 교방(敎坊)의 관기(官妓)

기방



19세기 진주성도(서울대박물관 10쪽 병풍 일부)

1593년 진주 교방의 관기

<고려사>

주군(州郡)의 기생 중 얼굴이 예쁘고 기예(技藝)있는 자를 뽑아 교방(敎坊)에 채우도록 명령하였다.

II. 논개의 죽음과 진주 사람들

2. 논개의 죽음을 공식화 하다

➤ 정문부의 從曾孫 정식(鄭拭:1683-1746)

“논개의 순절한 사실이 가려지고 사라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 논개의 이름과 행적을 찾아오니, 관청에 비석을 세워서 정려를 하고 포상해줄 것을 관아에 건의

II. 논개의 죽음과 진주 사람들

1. 바위에 이름을 새기다



서쪽: 정대룡(鄭大隆1599-1662) 남쪽: 한몽삼(韓夢參):1589-1662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의암기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의롭게 여겨 마침내 ‘의암(義巖)’이라 두 글자를 새겨 그녀의 의열(義烈)을 정표”

내가 신묘년(1651) 10월 24일 진양에 이르렀을 때.....

➤ 경상우병사 최진한(崔鎭漢)은 경종(1720-1722) 비변사에 건의

“신은 신축년(1721, 경종1)에 본도에서 우병사(右兵使)의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 옛날에 설인고(薛仁果)의 부하로서 당(唐)나라에 항복한 장수 방선지(傍仙地)가 다시 배반하였을 때, 왕씨(王氏) 여인이 방선지가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방선지를 찔러 죽였으므로 조서를 내려 송의부인(崇義夫人)에 봉하여 그 의로운 행동을 정표하였습니다. 저 논개가 이루어 낸 것이 어찌 왕씨보다 못하겠습니까.....

과거에 두 번이나 아뢰었지만 모두 시행되지 않았으니 더 이상 번득하게 해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기 논개에게도 정표하는 표창을 내려 억울한 넋을 위로하여 격려하고 복돋우는 방도로 삼으소서.

Ⅱ. 의암사적비 건립

- 조정에서 순국에 대한 구별에 곡절이 있음을 인정하고 논개의 忠義와 뜻이 가상하니 廟堂을 물어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
- 비변사는 논개 순국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인증 자료 요구
- 1722년 4월 최진한은 진주 士民들과 함께 공금과 私錢을 각출하여 『義巖事績碑』를 건립.
- 정식으로 하여금 비문을 짓게 하여 남강 비탈진 언덕 위에 비석을 세움
- 최진한이 의암사적비 비문을 인출하여 비변사에 보고하였는데도 조정의 답변과 논개의 포상이 거론되지 않음



Ⅲ. 1868년 의암별제가무 창설

- 정현석(鄭顯奭), 1867년 2월 14일 진주목사로 부임
- 정현석은 부임한 다음 해 1868년 병사(兵使)와 의논하여 의기사 사당을 중건
- 6월 중에 길일을 택하여 의암별제가무를 지냄
- 정현석은 1872년 김해부사로 취임 <교방가요> 편찬



Ⅳ. 의기사 건립

- 1740년 경상우병사 남덕하(南德夏 1688-1742) '義妓'의 旌褒를 요청, 윤희를 받음
- 의기사(義妓祠) 건립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냄

의기사



1868년 의암별제가무

Ⅰ. 참가자

- 헌관 3인: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 집사: 12인
당상집례, 당하집례, 대축, 전사관, 찬자(2), 알자, 사준, 봉작, 전작, 봉향, 봉로
- 가자(歌者) 8인
- 무자(舞者) 12인
- 당상악공 5명 당하악공 6명



채색도에 나타나지 않은 집사들은 어디에?

함옥헌(涵玉軒)



- 19세기 축석루는 본 누의 좌우에 부속 누각이 더 있었다
- 청심헌은 1623년 화재로 소실, 중건하였으나 1757년 이전 없어짐
- 함옥헌은 1889년 5월 함안군수 오형묵의 방문에도 남아 있었다.

의암별제가무 절차

1. 영신례(迎神禮)

영신곡을 연주한다. 음악을 그친다.

泰 迎神曲 樂止 三上香 樂作 堂上樂作 歌者奏上香樂章曰 界面調

2. 상향례(上香禮)

향을 세 번 올린다. 음악이 연주된다. 당상악을 연주하면 가자는 상향악장을 계면조로 부른다.

무자는 춤을 춘다. (노래 할때는 당상악, 춤을 출때는 당하악을 함께 연주한다)

三上香 樂作 堂上樂作 歌者奏上香樂章曰 (界面調) “舞者舞 歌時堂上 樂作 舞時堂下 並作”

의암별제가무 절차

진찬

향 조	잔(簋)	잔(簋)	잔(簋)	향 조		
	반(飯)	갱(羹)	시저(匙箸)			
	면(麵)	적(炙)	탕(湯)		간(肝)	병(餅)
	과(果)	해(醢)	과(果)		포(脯)	과(果)
	그릇 위에 채화					

진위

알자는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절한다. 헌관은 절한다. 풍악이 울리면 당상과 당하가 함께 연주한다. 謁者引諸執事 拜 引獻官 拜 樂作 堂上堂下並作

의암별제가무 절차

3. 초헌례(初獻禮)

축문을 읽는다. 헌관은 절한다. 음악이 연주되면 가자는 초헌악장을 계면중창으로 노래, 무자는 춤을 춘다. 음악이 그친다.

行初獻禮 讀祝文曰 獻官拜 “樂作 歌者奏初獻樂章曰 (界面中唱) 舞者舞 樂止”

4. 아헌례(行亞禮)

헌관은 절한다. 가자는 아헌악을 계면 삼창으로 부르고 무자는 춤춘다. 음악이 그친다.

行亞獻禮 獻官拜 “樂作 歌者奏亞獻樂章曰 (界面三唱) 舞者舞 樂止”

➤ 의암별제가무 절차

5. 삼헌례(三獻禮)

헌관이 절을 한다. 가자는 삼헌악을 우락조로 부르고 무자는 춤을 춘다.

行三獻禮 獻官拜 “樂作 歌者奏三獻樂章曰(羽樂調) 舞者舞 樂止”

6. 의암별곡(義巖別曲)

가자는 의암별곡을 처사가조로 부른다

樂作 歌者奏義巖別曲 曰(處士歌調)

➤ 의암별제가무 절차

7. 諸妓舞

“樂作 自祭官以下 參班諸妓皆舞 樂止”

음악이 시작되면 제관 이하 참관한 모든 기녀가 춤을 춘다.

8. 철변두

撤邊豆 獻官以下諸執事拜出 祭訖 並饋餼餘

변두를 물린다. 헌관이하 모든 집사는 절하고 나간다. 제사를 마치면 제사음식을 나누어 준다.

IV. 의암별제의 변천

1. 일제강점기

1927년 8월 1일 중외일보

晉州妓生들이 論介祭 舉行, 론개의 영혼을 위로키 위하여

론개의 제사는 지금부터 칠판년을 내려오며 유야무야 중에 그만두게 되었습을 유감으로 생각한 당대 예기 권변 기생들은 그전 예기조합 당시에 분배된 이백여원의 기본금으로 매년 의기 론개의 제사를 거행키로 하고 지난 이 십칠일 밤 열 시경부터 오옥엽(吳玉葉), 김봉란(金鳳鸞), 엄란심(嚴蘭心) 등의 십여 기생이 제단을 거행하였더라.

-1920년경 일시적으로 중단된 제향이 1927년 재개됨

論介祭典, 의기제

1933. 8. 25 동아일보

축석루에는 수천시민의 남녀가 모여들고 노기 퇴기들은 예기권변의 백여명 홍군(紅軍)이 춤춤하였는데 유량한 고악(古樂)의 청아한 소리는 끈끈이 장강의 물소리와 함께 충혼의백(忠魂義魄)을 위로하는 듯 하였다.

1933년 음력 6월 28일 동아일보(1933.08.25)

論介祭典



지난 28일은 음율이 만권하여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아 밤의 의식은 폐지하고 오후 4시에 축석루에서 의사(義士) 삼장사(三壯士)와 아울러 의식을 베풀고
집사(執事) 정송근, 최완자(崔完子)씨의 감회 깊은 제문 낭독의 있은 후 일반 참배가 있고 진주기생 총 출동으로 검무, 잡가(雜歌) 등으로 성황리에 폐식했다.

> 1933년 의암벌제 절차

- ▶ 제관과 기생들이 일자로 서서 의기사당에 안치된 논개 위패를 모셔놓는다.
- ▶ 제단 앞에 제관이 서고 좌우로 기생 일동이 차례로 둘러선다.

<초헌례>

- ▶ 초헌관이 술 한 잔을 올리고 부복한다.
- ▶ 대축이 축문을 읽는다.
- ▶ 초헌관이 4배를 올린다.
- ▶ 풍류소리에 맞추어 시조 1장을 읊는다.

<아헌례>

- ▶ 아헌관이 잔을 올린다.
- ▶ 시조 1장을 읊는다.

2. 의기창렬회 1945~1985

- 1945년 광복 이후 논개의 제사는 진주 기생들의 모임인 의기창렬회에서 주관
-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한 김시민, 김천일, 최경회, 황진 등과 7만 민,관,군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1987년 순의단(殉義壇)이 진주성 안에 건립. 매년 음력 6월 29일 제향.
- 진주 기생의 모임인 의기창렬회: 1년에 4차례의 제사 정월 초하루, 동짓날, 6월 그믐, 9월 9일에 논개의 제사는 의기사에 모심. 제사비용은 신안동 공설운동장 일대의 넓은 부분 제수답에서 충당, 그 이후는 의기사에 기탁되는 성금으로 운영

<중헌례>

- ▶ 중헌관이 잔을 올린다.
- ▶ 시조 1장을 읊는다.

<사신례>

- ▶ 각자 번갈아가며 잔을 올린다.
- ▶ 낙시(落匙)의 절차를 행한다.
- ▶ 춤과 검무를 한바탕 춘다.
- ▶ 십여 명의 명창들이 차례로 서서 노래를 부른다.
- ▶ 위패를 사당으로 모신다.
- ▶ 음복을 한다.
- ▶ 기생 일동이 함께 음물에 맞춰 <의암곡>을 부른다.
- ▶ 제전이 끝난다.

진주 교방의 큰 스승 최순이

- ❖ 최순이는 1892년 7월 7일 진주시 봉곡동 351번지에서 태어남
- ❖ 9세에 진주 교방에 동기(童妓)로 입학
- ❖ 1901년경 고종의 진연에 검무의 선상기(選上妓)로 참가
- ❖ 1913년 22살 진주 기생조합의 스승, 검무 전승
- ❖ 1919년 28살 진주권번 제자 양성, 검무 전승
- ❖ 1952년 61세 국립국악원 단원 김천흥과 운명적 만남
- ❖ 1966년 김천흥, 박헌봉, 유기룡 문화재위원 진주검무 조사
- ❖ 1967년 진주검무 무형유산 지정
- ❖ 1969년 최순이 줄



최순이와 성계옥

- 1966년 진주 의기창렬회 모임장소인 **모의당**에서 최순이와 성계옥의 운명적 만남
- “그들 이애미별제 아나. 이애미 제사 말이다. 사흘 동안 축석루가 불야성을 이뤘데이....”
- 성계옥은 의암별제를 복원하기 위해 1982년 고려대학교 한문교육학과에 입학
- 1986년 성계옥은 <의암별제지> 출간
- 1986년 진주시립국악학교 운영을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 위탁하여 1998년까지 운영
성계옥은 진주시립국악학교 교장으로 취임,
의암별제 가무악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



현행 의암별제 순서

신위순행(神位巡行) 신위봉안

◎ 영신례(迎神禮)

◎ 상향례(上香禮)

◎ 초헌례(初獻禮)

◎ 아헌례(亞獻禮)

◎ 종헌례(終獻禮)

◎ 사신례(辭神禮)

◎ 헌상 진주검무

◎ 음복례

3. 진주민속예술보존회 1992~2001

- 1992년 의암별제 음력 9월 9일에 진주성 축석루에서 완벽 복원
-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성계옥 이사장은 창렬회 회장 이음전에게 기존에 지내던 논개의 제향과 의암별제를 합칠 것을 건의
- 의기창렬회 회장 이음전은 자신이 모시던 제사의 원형이 의암별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논개의 제사를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 1994년 위임함

4. 2002~현재 '진주 논개제'의 의암별제



삼헌관

집례

4. 2002~현재 '진주 논개제'의 의암별제



가, 무, 악

현상 진주검무

V. 의암별제의 무형유산 가치

1. 의암별제가무는 진주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 의암별제가무는 진주성, 임진왜란, 남강이라는 공간과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
- 논개는 진주 교방의 관기(官妓), 즉 가무악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 예술인이었다.
- 논개는 인간이었으나, 순국 이후 신이 된 존재이다.
- 임진왜란 패배의 아픔을 논개를 통해 승화하고 승리의 신화로 각인하게 됨
- 논개의 義로움을 공식화 한 것은 진주의 사대부계층과, 의병장들의 후손들

관기(官妓)

논개

의기(義妓)

V. 의암별제의 무형유산 가치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 공연예술 분야(356) 중 의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27개가 등재.
- 그 내용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입문의식·추수감사·신년의식·제례·불교·무속·왕조송배·농경의식·축일·성인식·축하·지혜의식·어로·동물달래기·구전의식·조상송배·혼령의식·예언의식·종교의식 등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례의식의 대상은 왕, 조상, 성인으로 대상이 모두 인류 공통의 숭배대상
- 의암별제가무는 의식 분야의 대상이 천민 신분인 기녀인 것이 독특하다.

교방연향

교방악



교방연향 음식



교방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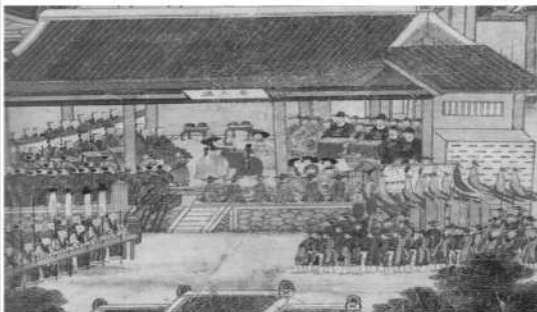


교방복식



교방 연향

의례 + 가무악 + 음식



동래부사접왜사도

- 꽃을 꽂는 의식
- 풍악과 기생의 춤
- 음식은 9작 7미
- 화상대찬(花床大饌)

3. 의암별제가무는 한국 예술축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 조선시대 의암별제 제사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 진주 교방 **최순이**의 증언에 의하면 의암별제 의식이 끝나면 **3일 밤낮**을 전국의 명기(名妓), 명창들이 진주에 모여 여흥의 잔치를 했다고 함
- 3일동안의 여흥가무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 축제의 원형**과 효시
- 진주 **개천예술제**의 탄생(1949)는 우리나라 현대 예술제의 효시로 알려짐
- 1868년 의암별제가무는 **진주 교방 300명의 기녀**와 진주목 사람들의 축제

2. 의암별제가무는 한국 교방문화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 의암별제가무는 제례의식+춤+노래+악기연주 의 구성으로 진행된다.
- 가무악은 교방의 관가들이 학습하던 과목이다.
- 유교의 제례의식과는 다른 교방문화에서 파생된 문화이다.
- 한국의 교방은 고려시대부터 1910년까지 천년 이상 지속된 공식기관
- 교방문화는 연향에서 의례와 가무악, 음식이 종합적으로 표현되는 문화이다.
- 의암별제가무는 의례와 교방의 연향에 시연되는 가무악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예술이다.





신사임당을 기리다 - 신사임당 추모제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류연교 회장)



사임당을 잇다 신사임당 추모제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강릉예림회

- 강릉예림회는 1991년 강릉선교장 안주인 성기희 교수께서 전통예절을 숭게 보존해야겠다는 큰 뜻을 품고 15명의 회원과 함께 창단 하였다.
- 회원들은 자수, 복식, 음식 전통예절을 지키기 위해 월례회를 활용 직접 만들어 보며 자기 계발을 위해 열심히 각자 정진하고 있다.
- 매년 양력 5월17일 오죽헌 뽕실에서 사임당 일신양 사업의 하나로 제례를 봉행하며 이는 여성들이 주관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제례이고 출가에 의하여 집례와 찬인이 진행하고 초헌,아헌,종헌 3헌관을 두어 분방, 강신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 자유분향, 음식례 순서로 제례를 봉행한다.
- 특히 제주는 해풍을 맞고 핀 진달래를 따서 담근 두견주를 쓰고 제물은 일주일 전 약과 다식, 전, 편, 채 등 전회원이 정성을 다해 준비해 제기에 고인다.

강릉예림회 약력

1991년~2023년

1991년 10월 19일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창립.	2012년 05월 17일	제11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1993년 01월 19일	제1대 초대회장 임재교	2013년 05월 17일	제12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1994년 06월 12일	제2대 심순옥 회장 취임	2014년 05월 17일	제13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1995년 01월 19일	단오제 참가 ("전통의 집"현수막 걸고 전통음식 판매)	2015년 01월 11일	제13,14,15대 김영자 회장 취임
1999년 01월 19일	제5,6,7대 김남정 회장 취임	05월 17일	제14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2002년 06월 13일	제1회 신사임당 일신양제 봉행	2016년 05월 17일	제15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단오제 음식판매 이익금으로 봉행)	2017년 05월 17일	제16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10월 22일	단오제 참가 (전통음식 판매)	2018년 05월 17일	제17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2003년 06월 02일	제38회 강원도민대전 감사대 수여 (전통음식 홍보)	2019년 05월 17일	제18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09월 04일	제2회 신사임당 일신양제 봉행	2020년 05월 17일	제19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10월 22일	제3회 신사임당 일신양제 봉행	2021년 01월 11일	(코로나19로 예림회원만 참석)
2004년 10월 22일	제8대 권영운 회장 취임		제16대 조옥강 회장 취임
2005년 01월 11일	제4회 신사임당 일신양제 봉행	2021년 05월 17일	제20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10월 22일	제5회 신사임당 일신양제 봉행	2022년 05월 17일	제21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2006년 10월 22일	강릉관내 여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강릉여고,감일여고)	2023년 01월 11일	제17대 류연고 회장 취임
2007년 01월 11일	제9대 최송악 회장 취임	03월	강릉 전통제례음식 연구 및 브랜드화
05월 17일	제6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05월 17일	개발 연구용역
2008년 05월 17일	강릉관내 여학생에게 장학금 전달(경포고, 문성고)		제22회 사임당추모제 봉행
2008년 05월 17일	제7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06월 04일	단오제 참가 (2008년으로 참가 종료)	2024년 05월 13일	사임당주간 운영 관련 기관/단체 업무 협약
2009년 01월 11일	제10대 윤동원 회장 취임	05월 17일	제23회 사임당추모제 봉행
05월 17일	제8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08월	강릉 한 상(반가로의 초대) 음식메뉴 발굴 용역
2010년 05월 17일	제9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2011년 01월 11일	제11,12대 조옥강 회장 취임		
05월 17일	제10회 사임당 추모제 봉행		

신사임당 (1504년~1551년)

신사임당은 조선전기 「자리도」,「초충도」,「노안도」 등의 작품을 그린 화가이다. 1504년(연산군 10)에 태어나 1551년(명종 6)에 사망했다. 이이의 어머니로서 사그람·글씨에 능한 예술가였다. 그의 어머니는 친경의 아들잡이로서 친경에 살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자녀교육을 할 수 있었고, 신사임당도 남편의 외조 속에 친부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생동하는 듯한 섬세한 사실화, 고상한 정신·기백을 드러내는 글씨는 모두가 탐낼 정도로 뛰어났다고 한다. 유교적 여성상에 만족하지 않고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개척한 여성이다.





사임당 추모제의 시작

당시 매년 치러지던 울곡 이이 제례는 40여 회를 지냈는데 어머니인 사임당 제례는 한 번도 올리지 못했음이 안타까워 예림회에서 여성들이 주도하는 사임당 제례를 구안해 보기로 결정. 당시 회장이셨던 김남정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오죽헌에 사임당 제례를 제안하고 전통 유교 방식 제례를 위해 강릉 향교 전교님으로 부터 전통 제례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강릉 예림회 주관으로 제1회 사임당 추모제를 봉행하게 되었다.

강릉 예림회의 자체 예산으로 매년 추모제를 지내다가 2006년부터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사임당 선양 사업 기간인 5월에 맞춰 매년 양력 5월 17일에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사임당 추모제는 제주 빚기를 시작으로 제주 준비, 제례 진행과 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여성이 주도한다.



진달래
두견주를 위한 준비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지만 강릉 단오는 한 달 전인 음력 4월 5일부터 시작된다.

신에게 바치는 신주를 빚는 일이 단오제의 출발점이다. 사임당 추모제 역시 제례에 쓸 술을 직접 빚는 일부터 시작된다. 사임당 제례에 쓸 제주는 매년 음력 정월 첫 말 날(上午日)에 술을 담근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정월 첫 말 날을 길일로 여겨 고사를 지내거나 장을 담갔다고 하는데 예림회에서든 길일인 정월 첫 말날에 제주(祭酒)를 담근다.

사임당 제례에는 강릉을 대표하는 가양주인 두견주를 제주(祭酒)로 쓴다. 이른 봄 산에 핀 진달래를 따는 일로 사임당 제례는 시작된다.

제주(祭酒)



이양주
정성을 담아 거른다

제례 일주일 전부터 모든 회원들이 나와 약과를 시작으로 다식, 어묵, 산적, 전 등의 제수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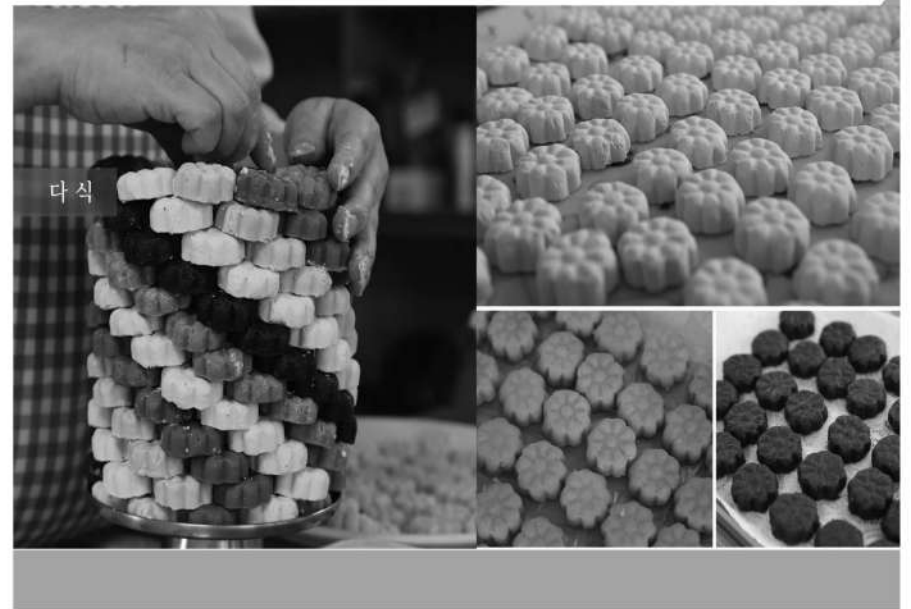
제례 준비의 마지막은 제수를 높이 쌓는 일이다. 제수를 높이 쌓을수록 하늘과 가까워지기에 껌새의 높이가 정성과 비례한다고 생각해 정성껏 쌓는데 예림회에서는 모든 제수를 30cm 기준으로 쌓는다.

제수(祭需)



꽃 감

기다림의 시간





대추



단호박



봉행(奉行)

매년 5월 17일 오죽헌 뒤편 앞뜰에는 사임당 추모제에 참가하려는 많은 초대 객들이 옥색 제례복을 입고 오죽헌을 찾는다. 주요 초대객은 강원도 여성단체 회원들과 강릉시의 각 기관, 단체장들, 유림과 이씨, 신씨 후손들 그리고 식견 있는 강릉의 여성들이다. 초헌관은 강원도지사 부인이 아헌관은 강릉시장 부인이 그리고 종헌관은 예림회장이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여성으로 선정한다. 제접사와 집례, 찬인은 예림회원 중에서 선정하고 제례는 의례문서인 율기에 의해 진행된다.





예림회원들은 참배객들과 나눌 음복 음식도 손수 마련한다.
음복상차림은 제례 전 회원 모두가 모여 그 해의 음복상 메뉴를 의논하는데 맛과
영양을 고려한 예쁘고 알찬 상차림으로 선정한다. 매년 강릉 특산물로 회원들의
숨씨가 돋보이는 다양한 음복 음식을 만들어 참배객들로부터 찬사를 듣곤 한다.

음복(飮福)



신사임당 추모제 앞으로의 과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추모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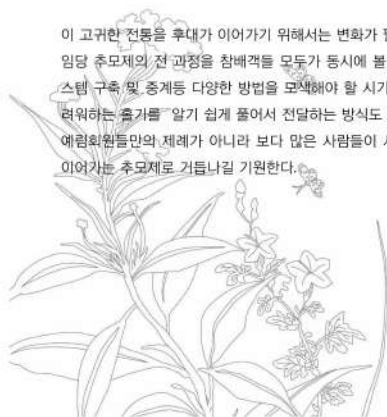


사임당을 잇다 _ 신사임당 추모제

신사임당 제례를 20여 년이 넘게 이어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여성들이 주관하여 봉행하는 전통 제례가 처음이었기에 주변의 관심이 큰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고진감래라 한해 두해 추모제를 봉행하며 갈고닦은 지성으로 사임당 제례만의 고유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고귀한 전통을 후대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사임당 추모제의 전 과정을 참배객들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미디어 시스템 구축 및 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젊은 세대가 어필하는 용기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방식도 고심하고 있다.

예림회원들만의 제례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임당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는 추모제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임윤지당을 기리다 - 임윤지당 열 선양 한다레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지회 이동희 회장)



고기 맛이
입을 즐겁게 하듯이
학문을 좋아하여

愛好之愈如芻豢之悅口 欲已不能
애호지유여추한지열구 욕이불능

그만두려
할 수 없었다

임윤지당 생애와 사상
그리고
임윤지당 열선양 사업

2024.10.20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지회



임윤지당유고
문초동송계상사단면

Contents

발표 목차

1
임윤지당
인생과 학문의 스승, 녹문
시대를 앞서간 여성선비
세기가 주목하는 여성철학자

2
임윤지당 열 선양 한다레
임윤지당 한다레 연혁
원주 예림회와 한다레

3
임윤지당 선양사업
다양한 선양사업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지회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지회

임윤지당 선양사업

WHO IS SHE?

임윤지당(任允曄堂, 1721-1793)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철학자

시대를 앞서간 조선의 여성 선비



임윤지당

학문의 스승, 녹문 임성주

생애와
가족

임윤지당

1721년~1793년(경종 1년~정조 17년)

함흥판관 임적의 5남 2녀 중 넷째

성리학자 녹문 임성주의 여동생
(‘윤지당’ 당호-임성주)

19세 신광유와 결혼, 원주로 이사

한과고독(鰥寡孤獨)



“내가 비록 부녀자이지만
하지만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 사이에
다름이 없다.”

『윤지당유고』 「극기복례위인설(克己復禮爲仁說)」

시대를 앞서 간 여성선비

"조선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단순한 시나 문장 등 문학적 차원을 넘어서 높은 철학적 사유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 지성사의수준을 한 차원 높인 철학자였다"



"임윤지당의 철학을 통하여 조선 성리학의 발전사적인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성리학이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통할 수 있는 보편적 철학사상임을 확인"

손홍철(연세대학교 철학과 겸임교수)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철학자

"임윤지당은 풍부한 성리학적 소양과 독창적 조예를 갖춘 뛰어난 한국의 철학자이다. 그 분의 한국 민족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인들의 자랑이다."

왕신춘(王新春, 중국 산둥대학 철학과 교수)



"누님 같은 사람은 진실로 귀중(閨中)의 도학(道學)이요, 여인들 중의 군자라 할만하다."

남동생 임정주

"나도 어리고 체구가 작는데 처신하는 것을 보니 의젓함이 태생교양과 같다"

시숙 신저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지회

21세기에 걸맞은

여성상의 자긍심을 고취해

임윤지당의 가르침과 뜻을

선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열선양 한다레

한다레 연혁

2005. 5월의 문화인물 선정(문화관광부)
2007년 제1회 한다레 개최
2024년 제18회 한다레 개최

한다레 운영 개요

개최일 : 5. 14.(윤지당 선생님 기일)
제관 - 남성일 경우 부인 또는 대행
: 초헌관(도지사), 아헌관(원주시장)
종헌관(시의회 의장), 헌화제관(국회의원)

한다레 주요 내용

- 전통방식 기반 현대적 한다레
(헌초, 헌향, 헌화, 헌다)
- 찻자리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지회

주관 단체_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지회

활동 분야

임윤지당 및 여성인물 업적 발굴 및 보급
전통문화 전승과 역사문화 교육 및 홍보
긍정적인 자세로 지역에 이바지하는 봉사 등

주요 연혁

1990년 창립
1991년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가입
2007년 제1회 임윤지당 열선양 한다레 개최
2023년 제17회 임윤지당 열선양 한다레 개최

최근 주요 활동

- 입춘첩 나눔 및 역사문화 답사 주관
- 녹색장터 및 환경캠페인 참여
- 임윤지당 열선양 한다레 주관
- 임윤지당 열선양 서화전 주관
- 타기관 임윤지당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활동



한국여성예술회 임주시지회



임윤지당 열 선양 한다레 영상

임윤지당 서화전
임윤지당 뮤지컬 별의 아이
임윤지당 사생대회

임윤지당 선양사업



임윤지당 사생대회



과거와 현재의 끈



임윤지당이 알려준일상속 작은 실천



피지 못한 꽃, 임윤지당

임윤지당 인문학강좌
임윤지당길 벽화그리기(여인꿈길)
문예작품 공모전

임윤지당 선양사업



登高自卑 등고자비
陟遐由近 척하유근
是日時習 시왈시습
習成若性 습성약성



높은 데 오르자면 낮은 데서부터,
먼 길을 가자면 가까운 데서부터,
이를 두고 부지런히 익힌다 하니
습관이 본성처럼 이루어지네



시대를 앞서간 조선의 여성선비
임윤지당을 기억해주세요.




홍도를 기리다 - 동도 명기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
(홍도 최계옥 기념사업회 김호상 회장)



홍도 최계옥(紅桃 崔桂玉)

김호상

((재)진흥문화재연구원 이사장/홍도 최계옥 기념사업회 회장)

- 목차 -

1. 홍도 최계옥은 어떤 인물인가?
2. 홍도 최계옥과 김만덕의 만남
3. 홍도 최계옥 예술제 연혁

1. 홍도 최계옥은 어떤 인물인가?

홍도 최계옥은 1930년대 말 민족의 울분을 달래주던 '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는 대중가요의 홍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홍도가 처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90.8.16. 국제신문에 「기생홍도는 조선시대 실존인물」이라는 기사에 묘와 묘비가 소개되면서였다.

발견 당시 묘비는 두 동강이 나 있었지만, 몇자만 파손되어 전체적인 묘비의 내용은 알 수 있었다. 비의 앞면에는 "동도명기홍도지묘(東都名妓紅桃之墓)"라고 써져있고 4면에 모두 글이 새겨져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20cm, 너비 50cm, 두께 20cm로 총 388자의 조그마한 석비이다.



사진 1 홍도 묘비(김백 촬영)

묘비에 따르면, 홍도의 이름은 최계옥(崔桂玉, 1778~1822, 45세), 자는 초산월(楚山月)이었다. 그녀는 246년 전 경주의 향리출신 아버지 최명동과 세습기녀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당시 조선사회의 관행인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그녀는 기적(妓籍)에 등재되어 어머니가 있는 교방(敎坊)에서 어려서부터 관기(官妓) 교육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최계옥은 10세에 시(詩)와 서(書)에 통달하고 음율을 깨우쳤으며, 14세에 얼굴이 아름다웠고 기예스런 재주는 더욱 뛰어났다. 당시 지방의 기녀 중에 노래와 춤에 능숙한 사람을 궁중의 여악(女樂)으로 선발하였기에 경주 교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20세 최계옥은 경주부윤 유한모(兪漢謨)의 추천으로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다. 궁중의 향연을 담당하던 장악원(掌樂院, 비문에는 상의원(尙醫院)로 되어 있음)으로 들어간 최계옥은 혜성처럼 등장해 노래와 춤으로 장안(서울)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그녀의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다.

정조 임금은 상궁(尙宮)인 그녀를 몹시 아껴 '홍도(紅桃)'라는 별호를 하사하였다. 국왕이 기녀에게 별호(別號)를 하사한 일은 매우 드문 일로 그것은 그녀의 미모와 재능이 매우 탁월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즈음 정조 임금의 장인 박준원(朴準源, 1739~1807)이 그녀를 좋아하자, 상처한 후 10년을 홀로 지내던 장인을 위해 외부(外婦妾)로 보냈다. 홍도는 박준원과 7~8여년 살았지만, 홍도는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였고 박준원은 39살이나 많은 노년의 나이였다. 거기에 더하여 당시 사대부집 여성들은 극히 제한된 공간에 갇힌 몸이 되어 생활하다 보니 얼굴은 야위고 근심으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박준원이 야위어 가는 이유를 묻자,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싶지만, 제약이 많은 자신의 처지가 새장에 갇힌 앵무새와 같다는 마음을 시로 표현하였다.

綠衿紅裳鳥 푸른 옷깃에 붉은 치마 입은 새는
每向雲霄鳴 매양 하늘과 무지개를 향하여 울고 있으니
雕籠深鎖久 깊은 새장 속에 갇혀 오래 있음에
那得不銷形 어찌 얼굴이 야위지 않으리오

「홍도 묘비문」 중에서

박준원이 죽자 3년 상을 치르고 32살의 나이로 12년간의 타향 생활을 마무리하고 경주로 돌아와 궁중에서 배우고 익힌 최정상의 실력으로 경주 악부(樂府)의 스승(宗師)이 되어 13년간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녀는 조선 말기 농민들의 동요가 심한 사회적 혼란기에도 묵묵하게 경주 교방을 지키며 소리꾼, 기생, 악사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아악(雅樂)보다는 오늘날 대중가요에 해당하는 속악(俗樂)의 장려와 후학 양성에 정성을 쏟았다. 홍도는 자식이 없어 병을 얻자, 일가친척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4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였고 형제산 선영(先塋, 경주시 도지동 산18-7번지) 아래 양지바른 곳에 안장되었다.

그녀가 죽은 뒤 28년이 지난 1851년(철종 2년)에 이르러 경주 교방에서 재물을 모으고 지역의 인사들이 글을 지어 그녀의 무덤 앞에 '동도명기홍도지묘(東都名妓紅桃之墓)'라 쓴 묘비를 세워 기념하였다.

2. 홍도 최계옥과 김만덕의 만남

홍도 최계옥은 정조 임금의 장인 박준원의 외부(첩)로 가기 전 20~22살 즈음 장악원에 머물렀다.

당시 김만덕(金萬德, 1739~1812)은 1795년 흥년 때 백성을 구휼한 공로로 탐라의 여인들은 바다를 건너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나라의 법이 있었음에도 정조 임금의 배려로 1796년 궁궐에 들어와 내의원(內醫院) 의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서울에 머문지 반년만인 1797년 3월 금강산에 들어가 여러 곳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것을 구경하였다. 이즈음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와 사대부들이 모두 한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만덕이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나던 1797년 그해, 홍도 최계옥은 장악원에 선발되어 20세에 독보적인 기예로 혜성처럼 등장해 그녀의 이름이 온 나라에 떨치고 있었다.

당시 홍도는 자신보다 39살이나 많은 김만덕이 금강산으로 유람 가자, 시를 지어 보낸 것을 보면 분명 두 사람은 궁궐에서 만났을 것이다. 그 만남에서 홍도는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우뚝 선 김만덕을 흠모하였을 것이고, 김

만덕은 어린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독보적인 재능을 가진 어린 홍도를 여쭙어 여겼을 것이다. 이때 홍도는 김만덕과 동갑인 박준원의 외부(첩)로 들어가기 전으로 장악원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홍도 인생에 있어 짧은 봄날이었다고 여겨진다.

홍도 최계옥은 금강산 유람을 떠나는 김만덕에게 아래의 시를 지어 보냈다.

女醫行首耽羅妓 여의행수 탐라 기녀가
萬里層溟不畏風 만리물결에 바람 두려워하지 않았네
又向金剛山裡去 또 금강산 깊은 곳 향해가니
香名留在教坊中 향기로운 이름 교방에 남아 있으리

『凡曲記聞』 중에서

3. 홍도 최계옥 예술제 연혁

홍도 최계옥의 묘와 묘비가 있던 형제산 기슭이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2005년 무연고분묘로 이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묘비는 잃어버리게 되었다. 2009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본 발표자는 홍도묘가 위치하였던 택지지구 문화재발굴조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0년 택지개발 사업체인 (주)한국토지신탁과 협의하여 홍도묘가 위치한 곳에 안내문을 세워 미흡하지만 표식으로 남길 수 있었다.



사진 2 홍도 묘 터 안내문

무연고분묘로 처리된 홍도 최계옥의 분골은 납골당 봉안 기한이 10년이라

2014년 발표자가 운영하는 사)신라문화진흥원으로 유연고묘로 인수한 후 남골당(경주 영호공원)에 현재까지 모셔져 오고있다.



사진 3 흥도 남골묘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경주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흥도 최계옥을 기리고자 2015년 [흥도 최계옥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모비 건립을 결정하였고, 추모비 건립 장소로 형산강 강변의 금장대 아래 소공원(흥도공원)으로 선정하였다.

금장대(金藏臺) 일원은 한국의 대표적 문학인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 배경지이고, 기예를 가진 기녀와 관련이 있는 '예기청소(藝妓淸沼)'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경관이 아름다워 기러기도 쉬어간다고 할 만큼 풍광이 빼어난 지역이다. 이외에도 선사시대 암각화와 신라고분, 지역대학교와 경주예술의전당 등 유적과 교육문화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곳이다.



사진 4 흥도공원

동도명기 흥도 최계옥 추모비는 2016년 4월 16일 금장대 아래 소공원(흥도공원)에서 지자체장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과 함께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사진 5 흥도 추모비 건립

추모비건립 이후 지역의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은 임의 냇을 위로하고, 뜻을 기리고자 매년 10월 중 좋은 날을 정해 소박하지만 [흥도 최계옥 예술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6 흥도 최계옥 예술제